

뜨거운 열정과 기업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런던올림픽 신화



박종길/ 대한체육회선수촌장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세계 5위까지 오른 것은 기적이라 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대한민국이 출전한 첫 올림픽이 1948년 런던올림픽이었다. 당시 나라 사정이 안 좋으니 선수촌 입주는 꿈도 꾸지 못했고, 경기장 근처 학교에 텐트를 치고 기숙하며 겨우겨우 올림픽을 치렀다고 한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당시 우리 동메달 2개를 땀고, 그렇게 미약하게나마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2012년, 대한민국은 세계 5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이건 자랑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성장했기에 올림픽 5위는 이제 기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성공을 위한 첫 단추, 과감한 조직개편

작년 1월 12일, 선수촌장으로 임명받았다. 선수촌에서 30년 동안 감독직을 맡으며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승을 하면서 선수들이나 지원요원들이 많이 해이해진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런던올림픽을 준비하게 됐는데, 과연 지난 베이징올림픽(세계 7위)만큼 성적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런던올림픽에선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던 야구종목이 없어졌다. 태권도의 경우 광저우에서 별 재미를 못 봤다. 당시 여자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훈련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계산해보니 잘해보야 금메달 7개를 따겠다는 결론이 났다. 큰일이었다. 4월쯤 가니 외신에선 대한민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도 따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결국 난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조직개편과 지원체제 교체를 감행했다. 선수촌 식당에 아주머니가 22명인데, 한두 달도 안 돼 사람이 바뀌곤 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아주머니들의 한 달 봉급이 100만 원도 채 안됐다. 대한민국의 최고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분들인데 이래서 되겠나 싶어 외부에 용역을 주고 급여를 올렸다. 그리고 기강이 해이해진 지원요원 몇 사람을 교체했다. 각 경기장은 런던올림픽 경기장 현장시설에 맞춰 다 개편했다. 체조의 양학선 선수의 경우 훈련장을 현지 경기장과 똑같이 색깔까지 맞춰 리모델링했다. 복싱 헤드나 글로브도 현지시설로 바꾸고, 레슬링의 경우 메달권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지도자도 바꾸고 시설도 바꿨다. 그리고 선수촌의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싶었다. 예전 감독들은 욕박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대가 바뀐 만큼, 나는 내가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취임한 이후로 모든 선수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체조선수들이 6시 30분에 나오면 난 5시 30분에 먼저 나와서 뛰었다. 처음엔 선수들이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100여 일이 지나니 마침내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도자들에게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선수나 감독이 있는지를 늘 순찰했다. 늦게 들어온 지도자들을 다음날 아침에 부르면 대다수가 집안일, 부인 얘기 등을 꺼낸다. 지도자들에게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젊은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보내주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했더니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늦게 들어오는 선수의 경우, 감독과 함께 살짝 불렀다. 올림픽이 500일 남았으니 여유를 부렸던 것이었다. 퇴출시키지 않는 대신 각서를 하나씩 쓰라고 했고, 앞으로 큰 일 할 사람이 이래서 되겠냐면서 달랬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그 중 하나다.

스킨십 리더십

나는 메달 수상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 50여 명을 체크해서 매일 악수를 하던지 포옹을 하는 식으로 스킨십을 하고 격려했다. 그 선수들 중 대다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땀다.

양궁 여자 단체올림픽의 최현주 선수가 그러했다. 런던 현지에 가서도 최현주 선수는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다.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양궁 여자부문 메달 획득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나는 그 선수를 찾아가 늘 격려해줬다. 결국 양궁 여자 단체부문에서 금메달을 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바로 최현주였다. 사람을 믿고 격려해준 데 따른 보상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2012 런던올림픽 성공비결은 열정적인 희생정신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신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열정을 보였던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선수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움직였다. 선수들과 같은 생활패턴으로 집에 가지 않고 선수촌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에 운동장 10바퀴를 같이 돌고, 경기장 20여 개를 다 둘러보며, 유망주들의 리스트를 짜서 매일 체크하고, 이렇게 하니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금메달을 딴 송대남 선수의 경우 런던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당신은 이름 없는 선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메달을 따게 된 거냐”고 묻자 “나는 우리 선수촌장이 매일같이 금메달감이라고 불러줬던 사람”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순간이 아닌, 평생의 열정을 가지길...

나는 한 순간의 열정이 아닌, 평생을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서 삶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다. 지금도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 내 나이가 60대 중반이다. 70년대에는 내 나이면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의 60대는 그 당시의 40대 중후반으로 여겨진다. 지금을 100세 시대라고 한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면 은퇴 후 50~60년을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지낼 것인가. 열정을 가져야 한다. 젊은 사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가까이 하며 모임에 열심히 다녀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열정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세계 5위의 성적을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상위권에 랭크되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주길 바란다.

Q & A

Q1.

외국에도 선수촌이 있는지?

A1.

독일의 경우 선수촌이 2개 있다. 독일은 분단되었을 때도 올림픽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다. 그런 독일을 이번에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엘리트체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태릉에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과 시스템 등을 보고 벤치마킹해갔다. 사실 일본은 이번 올림픽 메달 목표가 15개였다. 그런데 올림픽이 쉬운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목표가 15개였다. 박태환 선수가 수영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꼭 딸 거라 믿었고, 양궁 남자부문 단체에서도 딸 거라고 믿었는데 못 땀다. 태권도의 경우 금메달을 하나 땀 것은 우리의 입장에선 실패라고 봐야겠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13개를 땀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성과였는데,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선수들을 후원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포스코에서 체조를, 현대차가 양궁, 삼성은 레슬링, 한화와 한진은 사격과 탁구 등을 후원해줬고, 이밖에도 많은 종목에서 우리 기업들의 후원이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Q2.

육상에서 우리가 메달을 못 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2.

육상의 경우 경보, 마라톤 등에 희망을 걸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사실 육상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재능이 있다 싶으면 축구, 핸드볼, 야구 종목에서 다 뽑아간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육상에 대한 관심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육상은 학교체육을 더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에서 육상을 지원해주고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수 선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종목이나 스타가 발굴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Q3.

펜싱, 사격의 경우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한 종목인데 메달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우연히도 총장님이 사격선수 출신이다. 그러한 점이 선수촌에도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A3.

나는 어렸을 때 복싱을 좋아했다. 그래서 선수촌에서 가장 신경 쓴 종목이 레슬링, 체조,

Q & A

복싱 등이었다. 여기서 체조는 성공했다. 도마종목의 경우 종목 심판위원장을 선수촌으로 초청하기도 했고, 레슬링의 경우 모두가 비관적이었으나 정예멤버를 뽑아 해병대훈련도 시키고 하며 정신개조부터 시켰다. 그러고도 부족한 것 같아 나중엔 압축된 3~4명의 선수들에게 족집게 과외를 시켰다. 각자에게 맞는 감독을 붙여서 훈련을 시켰다.

정지현 선수의 경우 충분히 금메달이 가능했는데, 8강에서 아제르바이잔 선수와 붙었다.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이 경기장에 있었다. 아제르바이잔이 세계레슬링협회를 먹여 살린 다더라. 그게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다.

복싱의 경우 기업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신경을 쓴다고 했으나 금메달은 못 땀고 은메달을 땀는데,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사격의 경우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 그런데 김장미 선수의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했으나, 큰 기대 없이 출전권을 양도했는데, 결국 금메달을 땀다.

Q4.

선수들의 개인능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비결이 있다면?

A4.

우선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동화 훈련을 지속시켜 모든 동작이 동물적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외국선수들의 훈련기술을 판독하는 것, 또 체력관리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선수들 모두가 올림픽을 겁낸다. 그런데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자신감이다.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Q5.

금·은·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앞으로의 생활은 어떠한가? 국가적인 보상은 어떤지?

A5.

일시금으로 대한체육연맹에서 금메달 5,000만 원, 은메달 3,000만 원, 동메달 2,000만 원을 준다. 기업에서는 양궁의 경우 양궁팀 전체에게 16억 원을 주며, 또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따라서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메달을 따고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교직 등이 주어지며, 대학에선 교수로 스카우트되는 혜택도 주어진다.